

U대회 남북단일팀 구성 구체화

문화 허브도시 기반 구축 힘쓰겠다

강운태 광주시장



강운태 광주시장은 올해 소통강화와 함께, 지난해 거둔 성과를 기반으로 민주·문화·인권도시로서 확고한 기반을 구축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또, 2015년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남북단일팀을 구성하기 위한 노력을 구체화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도시철도 2호선은 지상고가와 노면전철방식을 혼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새해에는 어떤 사업에 역점을 둘 생각인지.

▲올해는 비행기로 보면 본궤도로 진입하기 위해서 열심히 푸른 창공을 날아갈 수 있는 형국이다. 기승전결 가운데 '승'의 단계로, 가장 힘들고 어너지가 필요한 때이기도 하다. 올해는 민주 인권의 가치가 시민의 삶 속에 뿌리내리도록 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국내외 기업유치, 문화콘텐츠 허브도시로서의 확고한 발판 구축에 열정을 쏟을 계획이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입장이 분명하지 않다.

▲일부에서는 버스를 좀 더 조밀하게 운행해 골목길까지 다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지만, 광주의 장기발전을 위해서는 2호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문제는 건설방식인데, 국토해양부로부터 승인받은 지상고가 방식은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기존 시가지의 복잡한 구간은 '저십도방식', 하천을 횡단하는 곳은 '고가방식' 그리고 도로폭이 넓고 교차로가 적은 곳은 '노면전철방식'으로 혼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의

도시철도 2호선 상반기중 최종방안 확정

시정 가치 기준 시민 행복에 중점두겠다

견수령 등을 거쳐 올 상반기까지는 최종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광주비엔날레와 디자인비엔날레를 분리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로선 비엔날레와 디자인비엔날레의 분리 운영 문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광주비엔날레재단에서 두 개의 행사를 성공적으로 운영해왔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체제로 발전시켜 나갈 생각이다. 다만, 앞으로의 비엔날레는 세계 미술사의 흐름을 주도하면서 광주의 정체성·향토성과 조화를 이루는 것은 물론, 지역 작가와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만들어 나가는 축제가 되어야 한다.

-2015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올해는 광주U대회 남북단일팀 구성 문제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그 같은 의사를 북측에 이미 전달했고, 긍정적 신호가 왔다. 하지만, 양측 대표가 만나는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김정일 북한국방위원장이 사망해 잠시 주춤했던 상태다.

-시민과 소통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없었나.

▲그동안 소통으로 부족했다는 점을 느꼈다. 하지만, 아무리 어려운 과제도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면 길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공직형태가 '소극적·부정적'에서 '적극적,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교훈을 얻었다.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광주의 시

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 모든 시정의 가치 기준을 시민의 행복에 둔 만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민과 만남, 원탁회의 등은 물론 시민의 의견과 제안을 듣는 창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의회와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있는지.

▲시와 의회는 행복한 창조도시라는 수레를 이끌고 가는 두 바퀴이다. 어느 한쪽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그만큼 목표달성이 지연되거나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욱 협조가 잘 되도록 하겠다. 매월 열리는 정례간담회를 더욱 활성화하고, 시의원과 만나는 기회를 확대해나가겠다.

-올해는 총선의 해다. 민주당의 고향 광주의 시장으로서 민주통합당에 고언을 한다면.

▲민주당은 그동안 정책이 없었다. 민주통합당이 수권정당으로서 국민의 마음을 얻으려면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보여줘야 한다. 올해 총선은 잘 치르려면 물갈이와 공천이 중요하네, 이를 위해서는 분명한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한다. 의정활동의 성과와 당무 성과, 여론, 지지도 등이 고루 감안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인물을 영입하는 기준도 만들어야 한다. 모든 것은 때가 있고, 일은 사람이 한다. 지금은 정권교체의 질의로 기회다. 그 기회가 눈앞에 다가왔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책임감을 갖고 대처해야 한다. '약무호남, 시무정권창출(若無湖南是無政權創出)'이다. 호남만으로는 정권창출이 어렵겠지만, 호남인의 마음을 얻지 않고는 정권창출이 불가능하다. 호남인의 마음을 경시해선 안 된다.

/총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여수엑스포 성공개최 올인할 것

KTX 무안공항 신선 관철하겠다

박준영 전남지사

박준영 전남지사는 "전남 개도(開道) 아래 최대 국제행사인 여수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도민의 역량을 모아가는 한 해로 삼겠다"고 밝혔다. 또한 새해부터 한미 FTA가 발효되는 만큼 친환경 농·수·축산을 통해 자생력을 강화하는데도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지사는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KTX 광주~목포 구간의 기존 노선 활용안에 대해서는 '짧은 생각'이라며 일축하며 무안공항 경유 신선이 반영되도록 정부를 설득하겠다고 설명했다.

3년째를 맞는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는 적자규모를 대폭 줄이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5월에 개최되는 여수엑스포 준비는 잘 되고 있나. SOC 못지않게 대회 운영과 시민의식 등 소프트웨어 측면도 중요한다.

▲여수엑스포는 전남도 개도 아래 가장 큰 국제행사다. 현재 106개 국가와 UN 등 9개 국제기구가 참가를 신청한 상태다. 고속도로 개통과 전라선 KTX 고속화로 수도권에서 3시간이면 박람회장에 진입이 가능할 정도로 SOC는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숙박시설 건립도 민간위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800만명의 관람객을 맞기 위해 민간차원의 범도민 운동을 전개할 생각이다. 청결·질서·친절·봉사 등 엑스포 4대 시민운동을



상황인데 복안은 있다.

▲SOC는 미래를 보고 멀리 내다봐야 한다. 기존 열차 노선을 활용하려는 정부의 의견은 짧은 생각이다. 호남고속철은 제주와 전남을 해저로 연결하는 문제도 바로 눈앞에 닥쳐있는 만큼 이를 고려해야 한다. 공항이 있으면 일부러 철도를 놓는데 무안국제공항이 있는데도 경유하지 않고 지나가는 것은 안된다. 전남도의 의견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반드시 정부를 설득하겠다.

-평소 민주당의 소신없는 협상에 반대해왔다. 민주통합당의 앞날과 총선 및 대선을 전망한다면.

▲민주당의 통합절차는 전당대회 등을 거쳐 비교적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본다. 하지만 법적 논란이 발생하는 등 논란이 생기면서 축제 분위기와 감동이 사라진 점은 안타깝다. 정식절차 없이 몇몇 지도부의 의견으로 중요사항을 결정해선 안된다.

총선과 대선에도 일관된 규칙을 적용해야 국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다. 민주통합당이 국민에게 봉사를 더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보여줬다.

-시카고아일랜드 추진 등 동물을 유난히 좋아하는 것 같다. 동물산업이 전남의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

▲뱀·개구리 생태공원과 신안 도초에 사파리아일랜드를 추진 중이다. 동물을 테마로 한 관광상품을 개발하면 주민들의 소득도 올라가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되기 때문이다. 벌벌, 생약초 등과 연계해 국내 유일의 생태관광지를 만들면 특히 중국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된다. 뱀 둑을 활용한 신약 및 가능성 물질을 개발해 연관산업을 유틸리티화한다면 전남의 신성장동력원이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농·수·축산분야 부가가치 높여 자생력 강화

F1 적자규모 대폭 줄이는 원년으로 삼겠다

통해 지역 역량을 결집한다면 성공 개최가 가능할 것이다.

-F1은 적자구조 개선이 관건이다.

▲막대한 개최권료로 인해 적자구조는 어쩔 수 없다. 다만 국제 연구기관이 지난해 F1대회후 300억원의 지역경제 과금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는데 전남이란 브랜드 제고 효과를 감안할 때 이 정도의 적자라면 끌고갈 만 하다. 현재 진행중인 개최권료 협상이 진척을 보이고 있고 국비 지원도 정상적으로 받으면 우리 도가 부담할 부분은 그리 크지 않다.

-한미 FTA는 '농도'인 전남에 큰 부담이 아닐수 없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농업, 특히 축산업 피해가 를 것으로 예상된다. 연 평균 피해 예상액 939억원 가운데 축산분야가 75%인 70억원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우리 도가 7년전부터 친환경농업을 꾸준히 추진해 우리 농산물이 품질과 안정성 등에서 어느정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 축산분야는 동물복지형 친환경 축산을 확대하고 가공공장을 설립해 부가가치를 높일 방침이다. 정부를 상대로는 FTA로 이득을 보는 산업에서 피해를 보는 쪽을 보전해주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농업인들도 농업이 생명산업이라는 희망과 자신감을 가져주길 바란다.

-KTX 광주~목포 구간의 무안공항 경유 신선 설치가 쉽지 않은

통해 지역 역량을 결집한다면 성공 개최가 가능할 것이다.

-F1은 적자구조 개선이 관건이다.

▲막대한 개최권료로 인해 적자구조는 어쩔 수 없다. 다만 국제 연구기관이 지난해 F1대회후 300억원의 지역경제 과금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는데 전남이란 브랜드 제고 효과와 효과를 감안할 때 이 정도의 적자라면 끌고갈 만 하다. 현재 진행중인 개최권료 협상이 진척을 보이고 있고 국비 지원도 정상적으로 받으면 우리 도가 부담할 부분은 그리 크지 않다.

-한미 FTA는 '농도'인 전남에 큰 부담이 아닐수 없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농업, 특히 축산업 피해가 를 것으로 예상된다. 연 평균 피해 예상액 939억원 가운데 축산분야가 75%인 70억원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우리 도가 7년전부터 친환경농업을 꾸준히 추진해 우리 농산물이 품질과 안정성 등에서 어느정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 축산분야는 동물복지형 친환경 축산을 확대하고 가공공장을 설립해 부가가치를 높일 방침이다. 정부를 상대로는 FTA로 이득을 보는 산업에서 피해를 보는 쪽을 보전해주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농업인들도 농업이 생명산업이라는 희망과 자신감을 가져주길 바란다.

-KTX 광주~목포 구간의 무안공항 경유 신선 설치가 쉽지 않은

통해 지역 역량을 결집한다면 성공 개최가 가능할 것이다.

-F1은 적자구조 개선이 관건이다.

▲막대한 개최권료로 인해 적자구조는 어쩔 수 없다. 다만 국제 연구기관이 지난해 F1대회후 300억원의 지역경제 과금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는데 전남이란 브랜드 제고 효과와 효과를 감안할 때 이 정도의 적자라면 끌고갈 만 하다. 현재 진행중인 개최권료 협상이 진척을 보이고 있고 국비 지원도 정상적으로 받으면 우리 도가 부담할 부분은 그리 크지 않다.

-한미 FTA는 '농도'인 전남에 큰 부담이 아닐수 없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농업, 특히 축산업 피해가 를 것으로 예상된다. 연 평균 피해 예상액 939억원 가운데 축산분야가 75%인 70억원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우리 도가 7년전부터 친환경농업을 꾸준히 추진해 우리 농산물이 품질과 안정성 등에서 어느정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 축산분야는 동물복지형 친환경 축산을 확대하고 가공공장을 설립해 부가가치를 높일 방침이다. 정부를 상대로는 FTA로 이득을 보는 산업에서 피해를 보는 쪽을 보전해주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농업인들도 농업이 생명산업이라는 희망과 자신감을 가져주길 바란다.

-KTX 광주~목포 구간의 무안공항 경유 신선 설치가 쉽지 않은

통해 지역 역량을 결집한다면 성공 개최가 가능할 것이다.

-F1은 적자구조 개선이 관건이다.

▲막대한 개최권료로 인해 적자구조는 어쩔 수 없다. 다만 국제 연구기관이 지난해 F1대회후 300억원의 지역경제 과금효과가 있었다고 분석는데 전남이란 브랜드 제고 효과와 효과를 감안할 때 이 정도의 적자라면 끌고갈 만 하다. 현재 진행중인 개최권료 협상이 진척을 보이고 있고 국비 지원도 정상적으로 받으면 우리 도가 부담할 부분은 그리 크지 않다.

-한미 FTA는 '농도'인 전남에 큰 부담이 아닐수 없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농업, 특히 축산업 피해가 를 것으로 예상된다. 연 평균 피해 예상액 939억원 가운데 축산분야가 75%인 70억원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우리 도가 7년전부터 친환경농업을 꾸준히 추진해 우리 농산물이 품질과 안정성 등에서 어느정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 축산분야는 동물복지형 친환경 축산을 확대하고 가공공장을 설립해 부가가치를 높일 방침이다. 정부를 상대로는 FTA로 이득을 보는 산업에서 피해를 보는 쪽을 보전해주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농업인들도 농업이 생명산업이라는 희망과 자신감을 가져주길 바란다.

-KTX 광주~목포 구간의 무안공항 경유 신선 설치가 쉽지 않은

통해 지역 역량을 결집한다면 성공 개최가 가능할 것이다.

-F1은 적자구조 개선이 관건이다.

▲막대한 개최권료로 인해 적자구조는 어쩔 수 없다. 다만 국제 연구기관이 지난해 F1대회후 300억원의 지역경제 과금효과가 있었다고 분석는데 전남이란 브랜드 제고 효과와 효과를 감안할 때 이 정도의 적자라면 끌고갈 만 하다. 현재 진행중인 개최권료 협상이 진척을 보이고 있고 국비 지원도 정상적으로 받으면 우리 도가 부담할 부분은 그리 크지 않다.

-한미 FTA는 '농도'인 전남에 큰 부담이 아닐수 없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농업, 특히 축산업 피해가 를 것으로 예상된다. 연 평균 피해 예상액 939억원 가운데 축산분야가 75%인 70억원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우리 도가 7년전부터 친환경농업을 꾸준히 추진해 우리 농산물이 품질과 안정성 등에서 어느정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 축산분야는 동물복지형 친환경 축산을 확대하고 가공공장을 설립해 부가가치를 높일 방침이다. 정부를 상대로는 FTA로 이득을 보는 산업에서 피해를 보는 쪽을 보전해주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농업인들도 농업이 생명산업이라는 희망과 자신감을 가져주길 바란다.

-KTX 광주~목포 구간의 무안공항 경유 신선 설치가 쉽지 않은

통해 지역 역량을 결집한다면 성공 개최가 가능할 것이다.

-F1은 적자구조 개선이 관건이다.

▲막대한 개최권료로 인해 적자구조는 어쩔 수 없다. 다만 국제 연구기관이 지난해 F1대회후 300억원의 지역경제 과금효과가 있었다고 분석는데 전남이란 브랜드 제고 효과와 효과를 감안할 때 이 정도의 적자라면 끌고갈 만 하다. 현재 진행중인 개최권료 협상이 진척을 보이고 있고 국비 지원도 정상적으로 받으면 우리 도가 부담할 부분은 그리 크지 않다.

-한미 FTA는 '농도'인 전남에 큰 부담이 아닐수 없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농업, 특히 축산업 피해가 를 것으로 예상된다. 연 평균 피해 예상액 939억원 가운데 축산분야가 75%인 70억원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우리 도가 7년전부터 친환경농업을 꾸준히 추진해 우리 농산물이 품